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중국방문의 나날 지나가나 매일 매 순간 못 견디게 그리웁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국땅에 첫발을 딛자마자 뚝뚝같이

비오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전체 예술대표단 성원들은 이번 중국방문공연이 조종친선의 새시대를 빛내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공연준비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었음뿐 아니라 조국을 멀리 떠나있는 전 사들에게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여러차례 감사전문까지 보내주시며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친선의 노래가 더 높이 울리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무한한 격정속에 영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예술대표단은 예술적기량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중국방문공연을 원만히 진행함으로써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내외분과 중국공산당원들과 중국인민들에게 기쁨을 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정서적, 문화적유대를 추동하고 더욱 굳건히 다지는데 적극이바지한 예술대표단 전체 성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보강한 예술인들이 앞

로도 우리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대변자로서 당의 사상과 의지가 맥박치는 참신한 예술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과 사회주의를 옹위하고 강력한 우리 식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주체음악예술발전의 핵심역량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은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

국제사회계가 격찬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도도한 기상과 역센 힘,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아낌없는 찬사를 더치고있다.

인디아신문 《오우선 뉴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이 자주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결국 령도자의 덕이라고 할수 있다.

김정은각하는 세련된 령도와 비상한 전개력, 완강한 투지를 지니신 실천가형의 지도자이시며 신념과 배짱, 자주적대가 강하신 지도자이시다.

결출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국력은 날로 강해지고있다.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조선이 불패의 강국이라는 목

소리는 진보적인민들뿐 아니라 서방나라들에서도 울려나오고 있다.

어느 나라나 강국의 존엄을 지닐수 있는것은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령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의 력사와 현실은 수령이 위대하면 령도가 크지 않은 나라도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하고있는 조선, 그 승리의 법칙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인민은 반드시 이긴다는것이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 조선의 현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끈질기고도 악랄한 압살책동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자기 선택한 길을 따라 과감히 나아가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나

가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은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힘찬 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라이의 《삼삼일보》는 오늘날 세계는 불패의 강국인 조선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서술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을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된것을 비롯

하여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힘과 지혜로 경제와 문화, 국방을 발전시키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인도네시아 자카르따국립 종합대학 부총장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독창적인 로선, 자주적인 정책으로 조선을 강력한 국가로 전변시키고계신다.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림없이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며 막강한 군력을 가진 강국이라는 목소리

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김정은동지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 이시다.

진보적인류는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 그이를 가장 훌륭한 정치가로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뛰어난 자질과 용모는 만민을 매혹시키고있다.

이제부터 계시어 조선은 강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더욱 위용떨칠것이다.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소위원장인 사기의 심정을 이렇게 파력하였다.

조선이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를 대대로 모신데 있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현대의 가장 출중한 정치지도자로 칭송받으실것이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그의 세련된 정치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보다 훌륭한 미래에 비약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공연 성황리에 진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 공화국 주석이 팽려원녀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이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 하며 1월 23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조중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마련된 우리 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방문은 조중관계의 위대한 새 력사, 새시대에 가일층 공고발전되는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의미있는 서막을 열어놓았다.

우리 예술대표단은 중국의 국경역인 단동역에 들어선 때로부터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은 1월 24일 오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조중친선의 전면적부흥을 위하여 새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고 조선과 중국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전통과 력사가 수놓아진 베이징시는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조선의 예술사절들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우리 예술대표단을 베이징역에서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협력부장을 비롯한 당대외협력부 간부들, 관계성원들이 반겨맞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공연이 중국당과 정부,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26일부터 베이징의 국가대극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팽려원녀사와 함께 27일 국가대극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과 상봉하고 공연을 관람하였다.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는 공연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주요성원들을 접견하고 담

화를 나누었다.

석상에서 습근평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 단장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에게 보내시는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전하였다.

습근평총서기와 팽려원녀사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자신들의 따뜻한 인사와 아름다운 축원, 실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친선예술대표단의 이번 공연은 조중쌍방사이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리행하기 위한 문화교류일뿐 아니라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을 경축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공고히 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조선동지들이 훌륭한 공연을 준비한데 대해 감동을 표시하면서 조선친선예술대표단이 원만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문화예술교류는 조중관계에서 매우 특색있고 전통적인 중요구성부분이라고 하면서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추동하는데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리수용단장은 우리 예술대표단이 준비한 공연종목마다에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친선의 귀중한 전통을 계승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끊임없이 승화시켜 조중관계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아로새기시려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고 언급하였다.

리수용단장은 습근평동지가 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방문공연을 중시하고

관심을 돌려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공연이 중국동지들에게 보내는 설인사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팽려원녀사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왕호녕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정설상 판공청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손춘란 국무원 부총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결지 중앙의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황광명 선전부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채기 베이징시당위원회 서기, 왕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협력부장을 비롯한 중국당과 정부의 간부들, 예술인들, 베이징시민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에 앞서 소개자는 두 당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안아오신 이해의 따뜻한 봄빛아래 조중 두 나라의 모든 가정들에 뜨거운 사랑과 희망, 새로운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나기를 축원하였다.

서곡 《조중친선은 영원히리라》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두 나라 인민들이 영웅적인 창조와 투쟁의 년대들에 애창하였던 명곡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음악, 무용작품들이 울렸다.

세기를 이어 두 나라 강산을 진감시킨 친선단결의 노래가 울리는 속에 조중친선의 위대한 령에서 뜻과 정을 함께 나누어온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과 두 당 최고령도자들께서 상봉하시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질 때마다 열광의 박수가 터

져올랐다.

출연자들은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가무 《달려가자 미레로》 등의 종목들에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위력떨치며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 따라 전진해나가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위상과 더욱 휘황찬란할 메일을 감명깊게 형성하였다.

주제조선의 넘과 기상이 살아숨쉬는 람홍색공화국기와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할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적감정을 힘있게 구가한 녀성3중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국기》는 숭엄하고 열정에 찬 형상으로 하여 관중의 심금을 울리었다.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신념인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강결한 의지가 반영된 《사회주의 지키세》, 《사회주의전진가》를 비롯한 노래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맺어온 두 나라 인민들의 우정을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

중국인민들속에도 널리 알려졌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를 민족적색채가 짙은 신비한 음식과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형성한 가야금을 위한 관현악 《아리랑》과 추추치는 청춘의 활력을 한껏 터친 타프춤 《청춘시절》은 장내에 열정과 환희의 세계를 펼쳐며 관람자들의 감흥을 자아냈다.

무대에는 녀성2중창과 남성합창 《강강의 노래》와 함께 새 중국의 자랑찬 70년 력사와 더불어 중화민족의 부흥의 년대들에 울려진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사회주의 좋다》가 공훈국가합창단의 힘있는 남성중창과 합창으로 울렸다.

중국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노래들을 부르는 판목있는 공훈국가합창단 가수들의 훌륭한 예술적형상과 그에 심취되어 함께 부르며 박수로 장단을 맞추는 관중의 호응으로 하여 공연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어울려진 감동의 열기가 고조되는 속에 《나의 중화민족을 사랑하네》, 《당어어, 청다운 어머니》, 《영웅관가》, 《붉은기 펴》, 《조국을 노래하네》, 《새 세계》 등 중국의 유구한 력사와 중국인민의 애국적감정, 랑만을 반영한 노래들이 울려져지며 관람자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인류음악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명곡들을 우리 식의 특색있고 세련된 관현악으로 펼쳐보인 세계명곡류 《친근한 선률》은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은 세계가 부러워하도록 친선과 단결의 서사시를 더욱 아름답게 써나가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음을 기백있고 참신한 형상으로 보여준 공연은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관중의 끝없는 매혹을 불러일으키며 시종 대절찬을 받았다.

중국노래 《오늘 밤을 잊지 못하리》로 막을 내린 공연은 보다 밝고 아름다울 조중관계의 미래를 확신하게 해주며 중국인민들에게 지울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는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무대에 올라 공연성공을 축하해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공연은 28일까지 계속되었다.

혁명가곡 《꽃과는 처녀》와 훌륭한 각색된 가극 《홍루몽》의 관람열풍이 새차게 일었던 국가대극원은 우리 예술사절들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모여온 관람자들로 련일 흥성이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뉘런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중국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예술인들, 베이징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람자들은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전하고 격정에 넘쳐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또 보내었다.

조중친선의 열기로 총만된 3일간의 공연은 관중의 대절찬속에 막을 내리었다.

공연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관중들은 공연의 특출한 예술적감각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조중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예술대표단은 체류기간 베이징의 이름있는 발레극장인 천교극장에서 우리 예술대표단을 환영하는 중국중앙발레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보리극장에서 중국중앙가극원 가극단의 공연을 보았으며 베이징지구의 대형종합박물관 수도박물관, 중국의 유명한 작가 로사와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명명된 박물관형식의 로사차집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10돐을 맞으며 건설된 10대건축물중의 하나인 중국미술관을 참관하였다.

습근평주석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방문기간 온갖 성의를 다하여 따뜻이 환대하였으며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예술대표단의 공연 활동은 풍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함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2019년의 첫 친선사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예술대표단의 중국방문공연은 새로운 개화기를 맞이한 조중문화예술교류사의 한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인민의 혈연적纽대를 위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킨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2월이다. 인민들의 행복속에 나의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다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둘어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안겨주고싶은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정모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차오르고있다.

나라와 인민을 령도하신 전기간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도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라산을 앞세우지 말라는 계산방법을 구현해오시며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제품을 하나 생산해도 인민들의 생활에 실지 도움을 주는것으로 되어야 하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 제일 귀한것은 응당 우리 인민들에게 차려지게 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지론이였다.

주체76(1987)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나가 일한 정형을 보고받으시다가 문득 농장원들의 집도 살아가보았는가 하시며 그들의 생활살이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일군으로부터 농장원들이 장판지를 좀 해결해달라고 했다는것을 들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주 좋다고, 내가 오늘 주인을 만났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동무가 장판지를 해결해달라는 농촌마을 안주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우리가 한것들이 무엇이든 바라고있거나 한것들이 없게 되니 기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낼수 있으니 기쁘지 않은가고, 동무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행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시였다.

언제인가 함경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신흥관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이 훌륭한 식당에 왔다가 그냥 갈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왔던길에 국수맛까지 보고 가자고 하신 장군님께서는 수저를 드시고 국수의 향이며 꾸미와 양념의 질을 가능해보시였다.

그 지방에 흔한 농마를 국수감으로 한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메밀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농마국수만 하면 그들이 섭섭해하지 않았는가고 하시면서 지금 인민생활이란 자꾸 큰것만 생각하는데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은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색다른 음식을 맛보려고 식당에 찾아오곤 한다. 이것은 하나의 생활이다. 그런데 식당에 왔다가 입에 맞는 음식이 없으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결코 스쳐버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시였다.

인민들의 천차만별의 꾸미와 기호를 깊이 헤아려보시는 그의 은정이나 어린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도 인민을 위하시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사려깊은가를 잘 알수 있다.

바로 이런분이기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를 번거하게 일하다가도 인민들이 잘살게 되였다는 말을 들으면 퍼뜩 웃는 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하시며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하나 음악정보센터,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비롯한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단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것이다.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전에는 강행군을 순간도 늦출수 없다고 의지를 가다듬으시고 내고 조진군길의 앞장에서 달려신 장군님, 멀고 험한 건설장들에 남먼저 가는것이 습관으로 되였다고 하시며 동서에서 서에서 북으로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끊이지 울려가신 어버이장군님이시었다.

그이의 헌신의 로고속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경영업기지를, 파수보장들이 일떠섰을뿐 아니라 수많은 인민봉사기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현대적인 주택지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12월 보름동안만도 불철주야, 불면불휴의 강행군현황까지도 개선청년공인회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말로 하는 예곡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예곡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남는것이 없다고 하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초강대강행군으로 낮과 밤을 이어오신 장군님은 한 나라의 령도자로서 전에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늘 위수던 한심결은 말씀에도 아려오었다. 이렇듯 그이의 숭고한 사명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

였고 최대의 기쁨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였다.

전 로씨야 원동련방주 대통령전대표였던 블리썩스키도 자기의 회상기에서 《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든 활동은 단 한가지 목표, 인민들에게 안녕과 번영을 안겨주는데 있었음을 확신했다.》고 감동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걸으니 애민헌신의 길을 오늘에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가신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사업을 개선하고 인민생활 문제를 푸는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을 쓰시며 모든것을 강그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과 도덕의리로 뵈었다고 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광명성절 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인민생활문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들은 락민의 행군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이 금방씩에 앉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강그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넋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주시려는 드림없는 의지, 자신께서 력사의 생년길을 앞장에서 헤쳐시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찬란한 레일을 이어이 앞당겨오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커가고있는것이다.

영원한 부흥발전의 길

한 사회생활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경제만 보아도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고있으며 남의 앞선 경험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도입하고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것이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구호이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국가건설과 활동의 전 로정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오신 그이의 확고부동한 위장과 의지가 어려웠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인민은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경제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모든것을 자기 식대로 해나가려는 결연한 투쟁정신을 지니고 자주의 한길로 곧바로 걸여왔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풍속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발양시켜나갔다. 만일 공화국이 외세의 강요에 순응하며 자주의 궤도에서 순간이나마 탈선하였다면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다.

자주의 원칙과 자력갱생의 투쟁방식을 굳건히 고수하였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에도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았으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험로역경도 돌파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을 수 있었다.

우리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자신께서 일찌기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한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주체적이고 자력갱생이며 여기에 우리의 존엄이 있고 궁지와 영애가 있다고 강조하신것이다.

오늘도 공화국의 인민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자기 식대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자력

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끈곳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지난해에 전체 인민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70년 력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긍지높이 새긴것은 바로 자기 식, 자기 힘에 대한 자부였다.

지난 세기에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대교조와 70, 80년대를 빛내인 창조자 건설의 일대 전성기, 고난의 행군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전진시킨 민족사적대사변들의 길바탕에는 자주적 원칙이 놓여있다.

자기 식대로 살며 투쟁하고 자기 힘으로 창조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공화국이 순간의 침체와 담보도 없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끝없이 승리하고 번영하여올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지금 공화국은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남의 식을 따르고 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던 저지 않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세력들의 회색물이 되고 전란을 겪고있는 비극적현실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절세위인들의 자주적로선과 정책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자주의 길은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길이며 남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 식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전체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적불변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이것은 공화국의 발전과 양양한 전도를 기약해주는 만년대대의 전략적이며 백승의 기치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설명절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 ◎

민족적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며

주체78(1989)년 1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설명절과 관련한 교시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설명절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며 하나의 민족명절로 크게 쇠어온데 대하여 실례를 드시며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접한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고대로부터 설명절을 쇠는것이 전통적인 풍습으로 되어왔으며 세나라시기와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일제식민지통치의

뜻 깊은 명절의 하루

주체88(1999)년 2월 16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인 동시에 설명절이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다함없는 축하의 경축행사와 다채로운 민속유희오락으로 사람들이 즐겁게 쇠고있던 명절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로 하루를 보내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시고 저녁식사를 드시였는데 검소한 감사우식 몇가지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조상대대로 쇠어온 설명절의 전통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설명절을 크게 쇠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도 자신께서는 군인들과 하루를 보냈다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 보내는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고 바로 그런 날이 자신의 명절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이 감사우식을 함께 맛보면서 감사의식행위를 일으키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할 방도를 의논해보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뜻깊은 명절날도 나라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하루로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대한국은 높고의 마음을 품어

공예 《주체의 방향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주체101(2012)년 12월 중국 료녕성 영구 삼화집단에서 올린 선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그들은 그의 령도밑에 전통적인 조종친선이 영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성어린 선물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의 기치높이 21세기의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의미를 담아 선물의 총높이를 2.1m로 하고 그이께서 계시는 한 주체사상의 위대한 해발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조타의 가운데부분에 주체의 봉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나아가는 의미를 담아 조타의 밑부분에 라침판을 금속으로 부각하여 새겨넣었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온도와 습도에 견디는 능력이 높고 여름철의 건조한 환경과 병해충에 견디는 능력이 강한 진귀한 나무인 원추리베나무(산지: 중국 길강성 함구 지역)로 선물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조종친선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원수님께서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변함없이 그대로 계승하시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랑의 정책들을 펼치시기를 보며 커다란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였다.

조선이 앞으로도 광휘로운 빛발을 세계에 찬연히 뿌리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조선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축원하였다.

선물의 총 높이는 210cm, 조타직경 114cm, 조타받침판의 길이 90cm, 너비 62cm이다.

본사기자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올해의 첫 정치일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느 한 제약분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대외활동기간 약품생산기업을 찾으셨다는것은 보건부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계신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보건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다.

공화국에는 오래전부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적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도 확립되었으며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일골인 보건의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하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국가의 보건제도와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 써가 아니라 실제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사업에 크나큰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관심과 지도속에 최근 몇해사이 류경치과병원과 육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병원들

는 한 로인의 손을 꼭 잡고 그이께서는 건강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이 병원을 일떠세운 목적은 세계적수준의 치과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행복할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건설된 현대적인 병원들과 보건시설들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둘어오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그이의 인민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이 집약되어있다.

세상에는 이름난 병원, 발전된 보건시설들이 많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로 더 중시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병원, 제약공장들은 한갓 기업의 리윤을 추구수단으로 되고있다. 그 속에서 돈이 없어 귀중한 목숨을 잃는 가슴아픈 일들이 매일 인간 각 벌여지고있다.

그러나 인민사랑의 노래가 울리는 공화국에서는 사람들도 국가로부터 돈환론 안되고 온갖 의료상해력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언제인가 조건을 방만한 외국의 한 의사도 《육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자들의 설비

를 하나하나가 매우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술도 대단히 높다. 더우기 놀라움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였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였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인민적시책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라고 감동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 인민사랑에 의해 공화국의 인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가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물처럼 아침 출근길에서였다. 나는 출근길을 재촉하는 인파에 끼여 지하철도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그때 내 앞에 서있는 조무래기들 몇이 저저마다 재잘거리고있었다.

나는 이들의 싱거운이질에 귀가 솔깃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칠남아, 오늘은 어디로 갈가?》

《글세, 과학기술전당과 트라콤포머판에는 가왔으니 오늘은 자연박물관에 갈가?》

칠남아의 말에 다른 애들이 팔짓을 달았다.

《안돼. 오늘은 문수물놀이장에 가기로 했잖니.》

《아니야, 오늘은 인민아외빙상장에 가려고 했어.》

《체, 그럼 개선청년공인회장이랑 립체물놀이화판에는 언제 가니? 언제부터 가자고 하더니...》

서로 자기생각을 고집하며 싱거운이질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느라니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가. 갈 곳이 많아 《걱정》이 많은 아이들이다. 오늘이 다르고 매일이 다르게 전번의 력사를 펼쳐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세워진 《행복의 동산》들을 다 유람해보느라 아이들은 몹시 바쁜것이였다.

후대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만상 《오늘은 어디로 갈가?》

머칠전 아침 출근길에서였다. 나는 출근길을 재촉하는 인파에 끼여 지하철도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그때 내 앞에 서있는 조무래기들 몇이 저저마다 재잘거리고있었다.

나는 이들의 싱거운이질에 귀가 솔깃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칠남아, 오늘은 어디로 갈가?》

《글세, 과학기술전당과 트라콤포머판에는 가왔으니 오늘은 자연박물관에 갈가?》

칠남아의 말에 다른 애들이 팔짓을 달았다.

《안돼. 오늘은 문수물놀이장에 가기로 했잖니.》

《아니야, 오늘은 인민아외빙상장에 가려고 했어.》

《체, 그럼 개선청년공인회장이랑 립체물놀이화판에는 언제 가니? 언제부터 가자고 하더니...》

서로 자기생각을 고집하며 싱거운이질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느라니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가. 갈 곳이 많아 《걱정》이 많은 아이들이다. 오늘이 다르고 매일이 다르게 전번의 력사를 펼쳐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세워진 《행복의 동산》들을 다 유람해보느라 아이들은 몹시 바쁜것이였다.

후대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풀속에서 나라의 행복동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는것이였다.

아이들이 명랑하게 구길없이 자란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몽롱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나 나라가 들쭉하게 아이들의 대외까지 마련해주고 나라의 역군이 되라고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찬찬한 앞날을 축복하신 그이의 품에 안겨살기에 아이들의 미래는 밝고 창창한것 아니겠는가.

그들한점 없는 아이들의 명랑한 얼굴을 바라보느라니 그와는 상반되는 또 다른 모습들이 어려왔다.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제도에서 학대와 폭력의 대상이 되어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지켜주세요》라는 간판을 들고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너무도 편이한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숭고한 미래사랑의 화원속에 사는 우리 애들은 순진한 웃음발을 날리며 매일과 같이 어서 오라 부르는 유원지로, 공원으로, 배움의 전당으로 달음박질하고 있는것이였다.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모양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나는 속삭이였다.

행복동인들이 어디로든 마음껏 가거라. 온 나라가 너희들의 활무래단다.

리경월



류경치과병원에서 치료예방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북남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오늘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민족사에서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일 굳은 결의로 추진되어있다.

70여년의 가슴아픈 민족분열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려는것은 우리 겨레 모두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막을수도, 되돌릴수도 없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지난해에 북남사이에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북과 남이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된 보금자리, 민족번영의 터전으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은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는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올해 북남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손잡고 보폭을 맞추어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으로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한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들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과 같은 조선반도정

세긴장의 근원들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을 현실은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하지 말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온 민족이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이 땅의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질적으로 볼수 있게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이루려던 조건조절이나 대가없이 재개할 용의를 천명하신

절세위인의 말씀은 지금 이

러운 사정으로 생기를 잃었던 남측기업가들은 물론 경제위기와 일자리로 고심하던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부여주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분렬의 장벽을 하루빨리 허물어버려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는 길은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대연합함으로써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를 저

들의 구미와 리익에 북중시커리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고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철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반대하여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이를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여가에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도, 민족의 휘황한 래일도 있다.

온 겨레가 민족의 존엄을 떨치고 무궁한 번영을 안아오는것이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해나갈 때 이해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전철호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은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서 항시적으로 견지해야 할 립장이다.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그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조국의 통일을 가장 열렬히 바라는 사람도, 통일조국에서 살아갈 사람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하기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공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견지해나가자면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

부의 간섭과 개입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외세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북중시커리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다. 민족내부문제에 대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

한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면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최근시기에도 외세는 《대북정책공조》라는것을 운운하며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적극적으러 나서지 못하게 각방으로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고있다. 현실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추종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

이다.

북과 남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외부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북남관계문제를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갈것을 주장해나가고 있다. 남조선의 여러 진보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얼마전 서울의 미국대사관앞

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집회에서는

《력사적인 남북선언리행으로 민족자주를 실현해나가자!》,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 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현해나가자!》, 《외세적 (한) 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적극 실현해나가자!》는 내용의 결의문도 낭독되었다. 외부세력의 온갖 방해책동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북중시커리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철대로 허용하지 않음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반반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장장 70여년동안이나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이 경제적으러 발전을 지향해나가는 오늘날까지도 민족분렬이 지속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은 하루빨리 분렬의 고통을 끝장내야 한다.

그러자면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일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는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들에 의거 세계가 놀라고 감탄한 구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한해동안에 무려 3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

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어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선언들을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은 민족의 열망과 기대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외세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기여하여 패방을 놓고있고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되어

있다. 원래 북남관계문제는 외세가 우리 나라를 들로 가른 데로부터 산생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올바로 풀어나가자면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해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을 위해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지난 시기에도 북과 남사이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해

기 위한 훌륭하고 소중한 합의들이 적지 않게 마련되었었다.

그러나 북과 남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들은 그때마다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불신과 대결이 다시금 심화되곤 하였다.

1970년대초 력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삼천리가 통일환희에 휩싸였을 때 외세를 등에 업은 민족내부의 분렬주의자들이 반통일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민족의 통일념원에 찬물을 끼얹은것은 잘 알려져

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도 외세는 북남관계문제에 간섭하며 합동군사연습의 불장난 등으로 우리 민족이 가는 앞길을 갖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다.

지난해 북남사이에 마련된 합의들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외세는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의 열망을 짓밟고 우롱하는 방해책동을 로골적으로 일삼았다.

외세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의 《속도를 조절》하라고 요구하면서 일제에 올라있는 협력사업들을 지연시키고있다. 또한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저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대북정책》과 《제재리행》, 북남관계문제 등을 남조선당국과 협의한다는 명목밑에 《실무팀》이라는것까지 내

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실무팀》은 북과 남의 협의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간섭하기 위한 외세의 경제장치》라고 비난해

나섰다. 이러한 사실은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면 북과 남사이에 아무런 좋은 합의가 마련되여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전진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북중시커리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철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드림없는 의지이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여기에 외세가 끼여들 하등의 리유가 없다. 우리 민족은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공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과 용기에 넘쳐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김일성총대학 력사학부 교원 박사 전경승

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을 현실을 눈여겨보아 민족이 가는 앞길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내외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 민족의 열망과 대세의 흐름을 철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에서 출판되고있는 평화와 번영, 통일주체

의 그림책들이 각계층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는것만 보아도 남녘의 민심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로 호르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거족적인군을 더욱 가속해나가기아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굴함없이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조선반도를 평화롭게 변모하는 민족의 보금자리로

지난해 2월 초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 올림피아경기대회는 민족의 단결과 존엄을 시위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겨울철올림피아경기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대회 성과적으로 개최되는것으로 바란다고 하시며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을 보내주시어 우리 겨레에게 화해와 단합,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시었다.

이후 련이어 진행된 세차례의 북남수뇌회담과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 북남사내 분야협약의 체결, 북남사이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대화와 협상들은 삼천리에 민족적 화해와 통일열기를 전래없이 고조시켰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

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보금자리에서 길이 복락하는 삶을 누리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희망이고 숙원이다.

돌아켜보면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진 이래 조선반도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깃든 때가 한번도 없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지난해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조선반도를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의 리전을 마련하기 위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대대로 신심드높이 나가야 한다. 조국의 통일과 평화의 주인공도 우리 민족이고 행복과

2차 세계대전이후 많은 나라와 민족이 기쁨과 환희속에 평화를 맞이할 때 우리 겨레는 분렬의 비극속에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강요당하였으며 새 세기가 시작되어 20년이 가까워오는 오늘까지도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놓여있다.

그나날 북과 남사이에 대립과 적대의 굵이 깊어지게 되었으며 총부리를 겨누고 총란과 포탄이 오가는 가슴아픈 사건들도 겪었다.

우리 민족의 삶이 더럽고 행방의 보금자리로 되어야 할 삼천리보금자리를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 지속하고있는것은 비극이라 아니할수 없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면 북남수뇌분들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따라 마련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협약의 서는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평화선언, 불가침선언이며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할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채택이후 북남관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군사적대관계해소를 위한 전진도 이루어져 평화와 번영, 통일을 략관하게 해주었다.

온 겨레는 해묵은 적대관계를 헛어버리고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민족적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들이 명시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를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족의 보금자리로 전면시켜나 가야 한다.

북과 남이 하나로 되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풍부한 자원과 그것을 민족공동번영에 리용할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을 갖추게 된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 는 달라질수 없지만 통일조국의 국제적지위는 눈부신 높이에 오르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평화의 락원, 번영의 보금자리를 후대들에게 마련해주기 위해서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에서 애국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야 할것이다. 김정혁

《력사적인 남북선언리행으로 민족자주를 실현해나가자!》,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 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현해나가자!》, 《외세적 (한) 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적극 실현해나가자!》는 내용의 결의문도 낭독되었다. 외부세력의 온갖 방해책동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이것은 외세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기여하여 패방을 놓고있고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되어

있다. 원래 북남관계문제는 외세가 우리 나라를 들로 가른 데로부터 산생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올바로 풀어나가자면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해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을 위해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지난 시기에도 북과 남사이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해

최근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모습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념원을 반영한 그림책들이 많이 출판되어 각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대표적인 그림책인 《평양에서 태양을 보라》에서는 고종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진 정갈하고 세련된 창건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등 평양의 모습을 실감있게 그려면서 북과 남의 어린이들이 서서불계선을 넘어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날이 곧 통일의 시작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할아버지의 감나무》에서는 6.25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주인공할아버지가 오늘날까지도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있는 가슴아픈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며 평화가 참으로 소중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북탐구생활》에서는 공화국어린이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사를 재미있게 그려놓고 통일과 관련한 생활상식과 공화

국의 여러 지역에 대해 소개하고있다.

이밖에도 《전쟁말고 평화를 주세요》, 《한반도통일력차 세계를 향해 달려요》를 비롯한 그림책들이 잇달아 출판되어 관심을 끌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남북관계에 혼풍이 불면서 평화와 통일념원을 담

고 행복을 누리고싶어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공화국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있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국가

활동에 주인으로 참가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의 이러한 행복상이 남녘인민들속에서도 주목을 끌고있는것이다.

지난해 공화국의 용단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북남관계에서는 반세기이상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구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오늘날 북남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놀라운 변화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조선반도를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현실은 저절로 창조되는것도, 누가 가져다주는것도 아니다. 오직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안아와야 하는것이다. 온 겨레는 지난해에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커다

란 성과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민족이 단합하고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이 땅을 길이 번영하는 삶이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과 분렬의 고통을 끝장내는 길은 온 겨레가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는 데 있다. 지금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달가와하지 않는 안락의 반통일세력들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판

본사기자 유금주

유라시아경제동맹의 인증을 받은 《은하수》 화장품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화장품들을 계속 개발생산하고 있다.

최근 《은하수》 화장품 25종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동맹의 품질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공화국을 방문하여 평양화장품공장을 두차례에 걸쳐 참관한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안 케어》유한책임회사 인사들은 공장이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직말씀을 받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기 위해 과학



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있는 공장의 기업전략은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일군들로부터 기술자,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혜를 합쳐 가지고 있는 창안들을 내놓고 실천에 적극 도입해나가는 기술발전 체계가 확립되고 제품경쟁능력이 대단히 단축되어 《은하수》 화장품들이 명품, 명제품으로 되고있는데 대해 주목을 돌리었다.

그들은 유라시아경제동맹의 전문품질분석단위인 중앙과학연구소품질검정유한책임회사 실험센터에 우리 나라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을 기본원료로 한 기능성화장품 25종에 대한 품질검정을 의뢰하였다.

검정결과 인삼로화방지크림, 인삼수렴성살균로, 인삼밤크림, 보습자외선방지크림, 알로에보습물크림, 영양살결물 등 모든 제품들이 품질인증증을 받았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의 《은하수》 화장품을 널리 소개하고 다량구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안 케어》유한책임회사 총사장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 제품들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품들에 대한 여성들의 애착심이 날로 커지고있다고 말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경에하는

《은하수》 화장품을 널리 소개하고 다량구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안 케어》유한책임회사 총사장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평양화장품공장의 《은하수》 제품들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인간을 위해 바치는 아름다운 삶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두뇌 경쟁 무대들에서 세계 패권을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두뇌 경쟁 무대들에서 세계 패권을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인재육성의 뿌리가 되어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정연한 속독교육체계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은하수》 화장품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건 및 기능강화작용을 리용한 화장

국제기억대가상을 받은 지력강자들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두뇌 경쟁 무대들에서 세계 패권을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정연한 속독교육체계

김정순박사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경제시대에 속독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특출한 인재육성에서 속독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속독이야말로 매력있는 인재육성방법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부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계적인 두뇌지력경기들에서 승리 패권을 쥘 수 있다.》며 크게 웃었다.

민족음식을 함께 들며

설명철에 떡국을 만들어 먹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평양고려호텔 근방에 위치한 떡국집은 떡국을 잘 만들어 봉사하는 것으로 하여 소문이 자자하다. 얼마전 우리가 이곳 떡국집에 들어서니 매니저 집집장이 사람들이 감칠맛이 있고 쫄깃쫄깃한 떡국을 훑훑 붙여가며 맛나게 들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서현경 떡국집책임자는 떡국은 예로부터 우리 겨레가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지방들에서 상징적인 설명철음식으로 일

러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족고전인 《월양세기》, 《경도잡지》에 서술된 《평양》(떡국)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도 선조들이 떡국을 만든 방법과 설에는 반드시 떡국을 먹었다는데 대해 알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수 있는 떡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떡국은 먼저 찬물에 흰쌀을 4~5시간 불구었다가 물을 찌우고 가루를 내어 여기에 소금과 끓는 물을 두

고 익반죽하여 일정한 크기로 반데기를 빚은 다음 끓는 찜가마에서 40분간 찌낸다고 한다. 이것을 10분간 뜸들여 직경 3~3.5cm짜리 떡가래를 만든 다음 하루밤 얼구었다가 0.3cm두께로 썰며 닭알은 풀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놓는다. 평고기는 살을 발가내고 나머지는 뼈째로 탕쳐서 삶다가 끓을 때 살을 두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서 장국을 끓이고 고기는 건져놓는다. 썰어놓은 떡가래는 찬물에 슬쩍 행구어 끓는 장국에

넣고 2분간 끓인 다음 평고기를 두고 여기에 푼 닭알, 파, 구워서 부스르뜨린 김, 참깨, 후추가루를 뿌려서 낸다고 한다. 이곳 떡국집에서는 떡국을 직접 만들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의껏 봉사하고있을 뿐 아니라 직장으로 바쁜 가정주부들을 위해 주문봉사로 진행하고있었다. 평화속에서는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유한 생활태도가 반영되어있는 《떡국만들기》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다. 실로 민족의 향취풍기는 떡국의 구수한 냄새가 민족적정서가 물론 풍겨오는 식당내부와 어울려 떡국맛을 한껏 살려주는듯싶었다. 모란봉구역에서 왔다는 한 녀성은 소문 그대로 이곳 떡국집에서 만들어 봉사하는 떡국이 참 별맛이라며 설명철날 온 식구가 이곳 떡국집에 오겠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설명철날 특색있는 설음식으로 떡국을 달게 먹는 사람들로 흥성거릴 풍경을 그려보는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본사기자 김진혁



결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말들

《떡국을 몇그릇 먹었느냐?》 설음식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흰쌀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고기장국에 넣고 끓인 떡국이다. 떡국은 옛날부터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되어왔다. 때문에 한해를 넘겨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는 뜻을 《떡국을 먹었다.》는 말로 형상적으로 나타냈으며 《떡국을 몇그릇 먹었느냐?》하는 말이 아래사람들에게 나이를 묻는 말로 쓰였다. 《세주불은》 설을 맞으며 축배를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어른들의 설음식상에 술이 오르지 않을 리 없다. 설날에 마시는 술을 《세주》라고 하였는데 고려약제인 도라지, 흰삼주 뿌리, 계피나무열매 등을 넣고 빛은 도소주와 산초, 등을 넣고 만든 초백주 등을 썼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설날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일이 없었으며 《세주불은》이라 하여 담하지 않은 찬 술을 한잔씩 나누는 것으로 그치었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철마의 꿈 (1)

《평양행》 열차를 운행하는 소문은 삽시에 온 서울 시내를 휩쓸며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해방의 환희를 싣고 내던던 북평열차들이 허리잡린 국토의 중단점에서 가슴찡이는 호곡소리를 터뜨리던 그날로부터 70여년만에 날아든 희한한 소식이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인종이 서울역을 향해 꾸역꾸역 물러가기 시작하였다. 역 앞마당에서는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목소리로 문익환목사의 시 《잡꼬대 아닌 잡꼬대》를 읊고있었다. 난 율해안으로 평양으로 갈거야 기어고 가요말거야. 이젠 잡꼬대가 아니라 통담이 아니라 이젠 진담이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립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테니까 그러다가 총애라도 맞아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넘어가는거지 시랑송에 이어 6.15시대에 남북사회를 품어했던 명가수들이 통일주체의 노래들을 흥취나게 부르며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한편 《평양행》 기차표 판매가 시작되자 흥분한 군중은 《와-》하고 대표소로 밀려가기 시작했다. 기차표를 받아든 사람들은 마치 하늘나라에 가는 차표라듯

《웃진 애비같다》 웃음이는 우리 겨레가 옛날부터 설명철에 제일 즐겨한 민족놀이였다. 설날이 오면 아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테 어울려 웃가락을 던지고 말을 전진시키며 서로 승부를 겨루었다. 《웃진 애비같다.》는 말이 있었듯이 때로는 머리 허던 사람이 젊은이나 어린한테 지고도 한번만 더 하면 다음에는 꼭 이길것 같아 또 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본사기자

《즐거운 널뛰기》 예로부터 설날에 우리 녀성들은 갖가지 고운 옷을 차려입고 한데 모여 저녁늦게까지 널뛰기를 하면서 놀았다. 집안에 해종일 갈혀있다 싶이 하는 녀인들이 담장밖 세상을 보기 위해 담장안에서 한 놀이가 널뛰기였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그해에는 말바닥에 가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속담은 녀성들이 널뛰기를 하면 몸이 단련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널뛰기에는 높이뛰어오르기, 제주부리기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다. 널뛰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연아 연아 올라라》 설날에 아이들은 세나라시 기부터 진행되던 연띠우기 놀이를 하였다. 연의 종류는 수십가지였는데 기본형은 장방형의 네모형연과 가오리형연이었다. 연을 만드는 기본재료는 살과 종이, 실이었으며 연을 띄울 때는 여러가지 모양의 열매를 리용하였다. 어린이들은 연을 만들어가지



《세주불은》 설을 맞으며 축배를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어른들의 설음식상에 술이 오르지 않을 리 없다. 설날에 마시는 술을 《세주》라고 하였는데 고려약제인 도라지, 흰삼주 뿌리, 계피나무열매 등을 넣고 빛은 도소주와 산초, 등을 넣고 만든 초백주 등을 썼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설날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일이 없었으며 《세주불은》이라 하여 담하지 않은 찬 술을 한잔씩 나누는 것으로 그치었다. 본사기자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2)

3. 세계적인 녀자권투강자 방철미 인민체육인인 금강산체육단의 방철미선수는 2018년 국제권투연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세계의 하늘가에 탐룡색공화국기를 높이 날리었다.



그는 예선경기에서부터 맞다든 상대를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이겼다. 준준결승경기에서 맞다든 인디아선수 역시 자국유원자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에 나왔지만 방철미선수의 맹판 타격에 얼마 대항해보지 못하고 5 : 0으로 패하고말았다. 제일 치열한 경기는 미국 선수와의 준결승경기였다. 승산이 보이지 않는데도 미국 선수는 어떻게 하나 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반공격

으로 나왔다. 그때마다 방철미선수는 불의적인 타격으로 상대의 기를 꺾어놓고 미국 선수들 5 : 0으로 타승하였다. 1등과 2등을 가르는 까자호스판전선수의 결승경기 도 5 : 0으로 결승하였다. 평범한 농장원의 딸로 태어난 방철미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후비육성단위에서 권

4. 조선의 힘을 보여준 림정심 림정심선수는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고 2중올림픽 금메달수상자이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육체적준비가 좋고 의지가 강했던 그는 2015년 11월 미국에서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정진력의 강자로써의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끌어올리기 첫번째, 두번째 등기를 성공시킨 림정심 선수가 세번째 등기에서 마지막동작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구간을 떨고 경기장바닥에 쓰러졌을 때 국제력기련맹의 의료진은 좌측고관절 탈구라는 진단을 내리고 더 이상 경기에 출전할수 없다는 의학적결론을 내었다. 하지만 평범한 노동자가정

7기초기술을 배워 얼마후에 는 군복업은 체육인이 되었다. 그는 특기기술을 소유한 체육인만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감독의 방호속에 훈련에서 많은 땀을 흘리었다. 피라는 노력속에 그는 인차 국내패권을 쥐게 되었으며 오늘은 자기 몸무게급에서 세계적으로 주먹이 제일 강한 선수로 되었다.

림정심선수는 2016년 8월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피경기대회 녀자 75kg급 력기경기에 출전하여 폭발적인 힘으로 빠른 순간채기와 받아안기, 추기의 력질 동작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종합성적에서 2위를 한 선수에 비해 16kg이나 더 들이올려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림정심선수는 지난해에 진행된 2018년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력기경기에 출전하여 2등한 선수보다 26kg 더 많은 무게를 들이올렸으며 2018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끌어올리기종목에서 우승하여 세계적인 력기강자로서의 실력을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현은경



그 방법이 간단하여 어린 처녀에게부터 중년부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겁게 뛰노는 락친적인 조선녀성들의 생활감에도 맞는 민속놀이이다.

널뛰기와 연띠우기

《연아 연아 올라라》 설날에 아이들은 세나라시 기부터 진행되던 연띠우기 놀이를 하였다. 연의 종류는 수십가지였는데 기본형은 장방형의 네모형연과 가오리형연이었다. 연을 만드는 기본재료는 살과 종이, 실이었으며 연을 띄울 때는 여러가지 모양의 열매를 리용하였다. 어린이들은 연을 만들어가지

고 앞이 탁 트인 뒤동산에 올라 옆으로 주런이 늘어서는 연을 띄워 높이 솟구치게 하거나 내리꽂혔다가 다시 오르게도 하였고 우정 옆으로 연을 날려 연줄잡기내기를 걸기도 하였다. 하늘높이 뿔뿔 연이 싸운 듯 저서 멀리 산너머로 날아가 멀어지면 어린이들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먼곳까지 달려가 자기의 연을 주어 오기도 하였다.

연띠우기는 어린이들에게 물체의 비행원리에 대한 지식과 하늘을 날아오를듯 한 기백과 포부를 안겨주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데 좋은 민속놀이였다. 본사기자



설날과 설날그믐날

《설날》이라고 한다. 《설날》이라는 말은 《설날→설날→설날》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여 《설-날》로 《설이 있게 되는 날》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다. 예로부터 설날그믐날은 설날준비를 하면서 밤을 밝혀가며 민속놀이도 하는 즐거운 날이었다. 이날은 《까치칠》, 《작은 실》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설날의 《근설》에 상대하여 첫 명절, 작은 명절이란 뜻에서 생긴 말이다. 이날에 어린이들은 까치저고리(색동저고리), 까치두루마기(색동두루마기)를 입고 밤늦게까지 여러가지 놀이를 하였다. 어른들은 묵은 세배를 하기도 하였으며 설명철음식도 준비하면서 흥성거리어었다. 《까치칠》의 《까치》라는 말은 《아침》과 같은 기원의 말로 《시초, 처음》이란 뜻을 나타내었다. 《앗, 아시, 아지》에서 유래된 《아지

가 음이 변화되어 이루어졌다고도 하며 즐거운 첫 아침에 조잘대며 창밖에서 사람들을 깨우는 《까치》란 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까치칠, 까치까치 우는 날》이라는 뜻에서 이루어졌다고도 한다. 설날과 관련된 말에는 교훈적인것들이 많다. 까치칠인 설날그믐날에 잠을 자면 눈섭이 희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날에는 여러가지 설맞이준비를 하느라고 불을 밝혀가며 밤을 지새운다. 유쾌한 웃놀이를 하면서 교훈적인 덕담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잠이 많은 아이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어버린다. 이때 어른들은 잠든 아이들의 눈섭에 떡가루를 발라주고는 눈섭이 세졌다고 놀려준다. 옛날부터 《설날그믐날에 잠을 자면 눈섭이 희어진다.》고 한것은 설맞이준비가 바쁘네 이날밤만큼은 모두 자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데서 생긴 말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무식쟁이들의 그림편지

옛날 무식쟁이 형제가 서로 따로 살고있었다. 어느해 설을 맞으며 형이 돈이 떨어져 동생에게 돈을 좀 보내라고 편지를 하는데 글을 모르는지라 종이에 돈 한냥과 물고기 스무마리를 그려보냈다. 그랬더니 동생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돈이 한푼도 없는데 돈을 보내라 하였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고는 돈을 그리고 문밖에다 돈을 많이 그려서 보냈다. 그러자 형이 《돈이 다 나가